상하고 있으며, 불교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10개 문항을 채택, 질의했다. 이에 대한 각 당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단 정몽준 후보의 의견은 최종 정리된 입장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밝혀둔다. <편집자주>

16대 대통령 출마자에게 듣는다

Hyundae Bulkyo 8th 8 창간 8주년 특별기획 III



정몽준 후보(무소속)

1951년 서울 출생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년~1987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현대중공업 회장
1988년~(현) 13·14·15·16대 국회의원
1990년~(현) 현대하이 이사장
1993년~(현) 대한축구협회장
1994년~(현)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1998년~(현)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회장
2000~2002년 2002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2001년~(현)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 이사장
2001년~(현)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재단 이사
2002년 제16대 대통령후보

사찰문화재 관리방안 마련

1. 공직사회, 군부대와 같은 종교의 엄정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도 종교편향적 사례가 존재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적 이용을 막고, 아울러 종교계가 정치현실을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정치불신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교문화 관련 예산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의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학계와 관계, 그리고 민간 전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3차원 입체영상 등을 응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문화관련 예산과 불교문화 관련 정보화지원사업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정보화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방안에 대해 정책 담당자들과 논의해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4. 불교관련 소재는 문화 콘텐츠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며, 차별성을 담보해 독창적인 창작영역을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5.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61%인데 반해 국고 지원은 고작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대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부와 불교계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사찰 문화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6. 조계사 일대를 불교문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무엇보다 조계사의 문화지구 선정에는 불교계의 입장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7. 불교계의 반대의견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해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과 환경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수립 시 사찰의 수행환경 및 문화환경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적 계도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관심을 갖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치적인 문제에 얽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적인 문제와 종교계의 입장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 각자의 종교가 갖고 있는 철학을 존중하는 가운데 종교문제를 다루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발 · 환경문제 조화롭게 병행 유도

불교 문화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지원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1941년 경남 신청 출생
1967년 대한일보기자
1969년 서울대학교 졸업
1988~94년 노동운동 투신, 언론노련 초대, 2대, 3대 위원장
1993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
1994년 우리농업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1995~9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대 위원장
1997년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1997년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
1999년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
2000년~(현) 민주노동당 대표
2002년 민주노동당 제16대 대통령 후보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반대

1. 민주노동당은 모든 사람이 자율성과 창조성을 기르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사회에서 개인의 종교활동을 극대화하고, 더불어 모든 종교 또한 어떠한 권력에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부의 문화예산은 공공문화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문화로서의 불교문화 보존과 보호를 위해 예산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보호와 보존의 차원에서 불교문화에 대해 특별한 배려보다 오히려 서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개발에 우선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미 우리나라 종교계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종교는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불교계에 특별히 정보화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과 실행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역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 개발에 따른 관리, 유지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불교문화자는 대부분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관리 및 보수는 환경보존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현 정부의 개발 중심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환경보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의 보존도 함께 고려한 것입니다.

6. 적극 찬성합니다. 인사동이 지정된 것은 조계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 북한산은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허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산 관통도로 개설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고속철 또한 같은 입장이며, 편리함을 이유로 숲이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후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눈이 멀어 우리의 생명과 생활의 안위를 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8. 모든 종교활동이 한 개인의 행복이나 특정 종파의 안위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계의 대사회 활동은 종교 역할의 필요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9. 정부는 대중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눈치를 살피며 달라이 라마 방한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사대주의적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서민들의 당입니다. 마땅히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10. 종교간의 갈등은 각 종교의 이기와 권력독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종교는 모두 공평하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를 억압하고 비난하는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대중의 안식처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 문화재 고려, 개발위주 정책 재고

달라이라마 방한 거부는 사대주의 외교

역대 불교공약 얼마나 지켜졌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대 대선에서 제시된 불교계 공약도 마찬가지다. 선거 전에는 '불심'을 끌어안기 위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얼굴을 바꾸었다.

먼저 97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을 보자. 당시 김대중 후보는 모두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켜진 것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국립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지원 단 두 건에 불과하며, △사찰환경 종합대책 마련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두 항목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불교관련법의 제 개정 추진 △종교편향 없는 종교정책 실현 △문화재 보존 △불교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지원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지원 △남북 불교교류의 지원 확대 등 6개 공약사항은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불교관련법을 제 개정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해놓고도 법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을 개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편향적 종교정책 배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군승인원 확충 방안 마련 △불교문화유산 보호 · 육성 지원 등의 불교계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외에 다른 공약사항에 대한 책임성 있는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신성한 공약'을 '부도수표'로 만든 것은 92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불교방송의 지방방송망 설립 허가 △사찰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련 법규 중 불합리한 조항 개정 또는 폐지 △경부고속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통과노선 변경 등 7개항을 불교계에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지방망 허가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사항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불교계로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던 전통사찰 보존법 및 사찰 토지초과이득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한 공약을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처분함으로써 불교계의 집중비난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역시 △사찰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 개선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 또는 폐지 △군종정책의 불평등 시정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말 그대로 '空約'에 그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 10건중 대장경 한글화 등 2건 이행

김영삼 대통령 7건중 불교방송지방망 확충만 해결

이처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표를 모으기 위한 '선심성 구호'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또 다시 올해 대선에서 제시될 공약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방관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각오다. 조계종은 최근 총무원의 실무자들로 '대정부 정책개발팀'을 구성하고, 대선 후보들의 대 불교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어떤 사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공약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공약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2년 불교교육능력평가를 위한

제1회 연합회 포교사고시 실시 공고

불교교양대학보호와 정보제공을 위해 창립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로서의 기본 소양, 불교교리의 이해, 사회봉사 참여의식, 불자로서의 가치관등에 대하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시행하여 실천불교를 위한 정법포교의 선구자역할을 할 불교포교사를 배출하고자 제1회 연합회 포교사고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공고함.

◆ **포교사고시 응시대상:** 연합회에 등록된 교양대학(교육과정 6개월 이상)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시험일시: 2002년 12월 8일(일)오후1시~오후5시(필기시험 및 면접)**
◆ **응시원서 접수기간:** 2002년 10월 21일(월)~11월 2일(토)
◆ **응시장소:**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종로구 안국동)
◆ **포교사 고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수계첩 사본
-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진2매(반명함판)
- 응시료 50,000원
(국민은행 023-01-0566-256 한국불교교육연합회)

◆**접수방법:** 학교별 일괄접수
◆**전형유형:** 서류전형→ 1차 시험(필기시험 및 면접)→ 최종합격자발표
→ 최종합격자 연수 및 품수
◆**합격자발표:** 2003년 1월 10일
◆**문 의:** 연합회사무국 02-734-9595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 신규가입할 교육단체 및 교양대학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한정섭법사(한국불교통신대학장) 정대은스님(해동불교대학장)
김재일법사(동산불교대학장) 안경우법사(경북불교대학장)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정 기 총 회 공 고

해인동문스님들께 알립니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에서는 불기 2546년도(2002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시어 동문회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정기총회 개최일시 : 불기 2546년 (2002년) 10월 24일 목요일
- 음력 9월 19일 오후 1시
2. 장 소 : 해인사 보경당
3. 안 건 : 1) 회장선출 및 임원선출 2) 감사 및 경과보고
3) 해인승가상 시상 및 장학금 전달식
4)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5) 기 타

※ 문의 :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02)720-8113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회 장 세 민 합장